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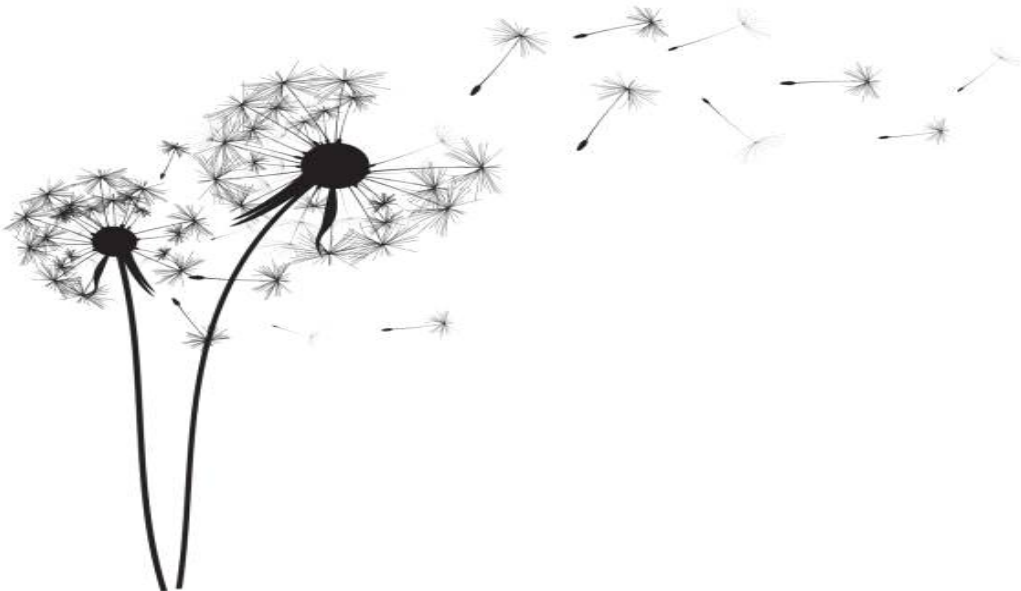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7월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보편 지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홍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마르코 6,7)



△ 그림:www.istockphoto.com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7,12-15

◎제2독서: 에페소서 1,3-14

◎복음: 마르코 6,7-13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은 직선에 계시지 않고 곡선에 계십니다.”

저는 한번 꼬일 때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 적에, 저의 일생도 누군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인간을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굴곡지게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직선 안에 계시지 않고 곡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모든 것이 준비된 편안한 직선대로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찾을까요? 어쩌면 직선대로의 삶의 여정만을 생각하며 살아간 인간에게 하느님의 존재는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 것도 지니지 못한 채 그저 맨 몸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며 다른 것들을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기보다 하느님께서 주신 복음의 선물을 맛보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것들의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현실을 넘어서 생명력 넘친 현실로 뒤바꿔 줍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의 굴곡진 삶 가운데에서 희망을 꿈꾸며 기쁘게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편안한 직선의 길이라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굴곡진 파견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느껴 이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하시어 항구히 살아갈 기쁨을 선사하셨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굴곡진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오시어 복음을 선포하시고, 살아갈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지혜문학: 삶의 지혜를 전해 주는 성경의 책들
⑤(욘기 2)

의인이던 욘은 적대자 사탄의 생각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심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재앙들에 직면합니다. 열 명의 자녀들과 자신의 전 재산을 전부 잃어버린 것이지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커다란 불행에 직면한 욘은 어떻게 이 불행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느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욘 2.9)

이 구절은 불행에 직면한 욘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욘의 고통은 곧 아내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모조리 잃었으니 말입니다. 욘이 복락을 누릴 때,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었으니 하느님을 찬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욘의 아내의 말에 담겨 있는 신앙은 조건부 신앙입니다.

욘기 4장-27장은 욘의 세 친구가 등장해 욘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친구들은 욘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 욘의 죄를 지은 탓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인과응보 사상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욘은 절대 인과응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해서 매번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이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욘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절규합니다.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니 그저 이유만이라도 알자고 말합니다.

“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38.2)

하느님의 이 답변은 욘의 질문을 꺾어놓습니다. 세상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뜻을 욘이 좁은 시선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느님을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 한계를 욘에게 지적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모두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욘의 저자는 말하고자 합니다. 무죄한 이의 고통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감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욘은 고통 중에 절규하며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마침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느님을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욘의 믿음은 보신 하느님께서 이전에 누렸던 복을 다시 돌려주십니다만, 이제 욘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느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 대 꽃]
(2021년 6월12일 ~ 7월8일)

강주연헤레나	김한레젬마	유교순베로니카	이정재요 셉	차춘자마리아
길장일사도요한	박미란가브리엘라	유야모크리스티나	이혜순가브리엘	차향임로사리아
김금레이 파	박재홍베드로	육순자데레사	장은수요한	최경완젬 마
김대수사도요한	방현옥레지나	윤미순마르타	장태순소피아	최금순마르타
김선덕아가다	송영근사도요한	윤임자유스티나	전영애프란체스카	하유란율리안나
김성신안 나	송은조아네스	이경자도미틸라	정덕순데레사	하정금바올라
김성자젤마나	심 데레사	이귀자수산나	정명이세실리아	한금레데레사
김숙희베로니카	심홍재디모테오	이금이마리아	정복임율리아	홍선의프란체스카
김순태보나벤투라	안 도안드레아	이선임데레사	정인덕가브리엘	홍은미유스티나
김정옥안나	안성옥에리카	이성숙안젤라	조금원세라피나	
김종임로사	양경희헤레나	이성재안셀모	조영순마리아	
김준영로 사	원수관야고보	이연옥스텔라	차오순안나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 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 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달집 양명구(다비드) 이경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교구지침 (7.1.부터 시행)

1. 미사 참례시 전체 좌석수 대비 50%(약 220명)
(단, 백신접종자는 입장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2. 제단체 모임(레지오 포함) 실시
(단 14일까지 8인까지 모임 가능)
*모임참석시엔 미사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인명록 작성은 필수사항입니다.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22년도 혼인미사 예약접수:** 내년도 혼인성사를 희망하는 교우는 타 본당교우 포함 선착순 접수중이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사목회:** 7/18(주일)교중미사 후, 윤지총 들

■ **주교님과 함께하는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날 미사**
*7/25(주일)09:30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
*대상: 조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 (선착순20가족)
*신청마감: 7/18(주일), 문의: 063-285-1031

■ **무지개장학재단 2021년도 하반기 장학사업 안내**
*지원대상: 전북지역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 *신청기간: 8/6(금)까지
*접수: 전주교구청 사회사목국(063-230-1074)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7월9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6월28일~7월4일)

주일헌금:	3,572,000	교무금:	5,231,000
오병옥(야고버)	100,000	김정옥(안나)	100,000
감사헌금	익 명		1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셀모) 이성숙(안젤라) 전통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투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취(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츨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통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